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- WSJ, 블룸버그 등 유료 구독자의 경우 법적 이슈 때문에 원본을 링크로 연결한 점 널리 양해 요청드립니다)
- KOCHAM은 9월 23일 인근으로 이사했습니다. (새 주소지 445 Park Ave. NY NY, 11102, 10th floor)

#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미 2분기 경제, 거의 2년 만에 가장 빨리 성장
- WSJ: 미 내구재 주문 반등...항공기 수요 급등에
- Bloomberg: 백악관, 연방 부처들에 “셋다운에 따른 일자리 축소에 대비하라”
- WSJ: 지난주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 감소

#### [미국 금융]

- WSJ 금리 인하가 당신의 용자 이자를 곧바로 낮추지 않는다:
- WSJ: 견조한 GDP 성장에 국채 금리 상승, 기술주 타격
- Reuters: ‘관세 조치가 달러 기축 통화 변경 아닌 악화 시킬 뿐이다’

#### [무역 전쟁]

- Bloomberg: 트럼프 철강 관세에 멕시코 등은 중국에 규제

#### [주택]

- CNBC: 오피스 투자 수요, 2025년 상반기에 훨씬 증가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YahooFinance: 스타벅스, 일자리 900개 감축 및 매장 폐쇄 계획
- Bloomberg: Spotify, AI 생성 콘텐츠 단속 예정

#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# [미국 경제]

#### Bloomberg: US Economy Grows at Fastest Pace in Nearly Two Years on Consumer Spend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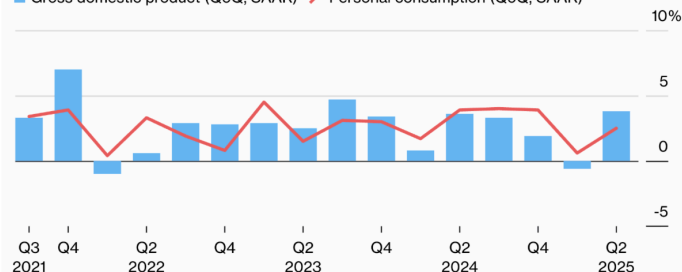
##### 미 2분기 경제, 거의 2년만에 가장 빨리 성장

- 연방정부가 당초 소비 지출 추정치를 상향조정하면서 2분기 미 경제 성장이 거의 2년만에 가장 빨리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.
- 오늘 목요일 연방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의 인플레이 조정 GDP가 연율로 3.8% 성장했다. 당초 발표 3.3% 보다 높았다.
- 또한 경제분석국은 실질 GDP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 평균 2.4%로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고 발표했다.

#### US Economy Expands at Fastest Pace in Nearly Two Years

Revised second-quarter data reflected pickup in household spending

■ Gross domestic product (QoQ, SAAR) ▲ Personal consumption (QoQ, SAAR)



Source: Bureau of Economic Analysis

Bloomberg 기사

#### WSJ: Durable-Goods Orders Bounce Back on Surge in Aircraft Demand

##### 미 내구재 주문 반등...항공기 수요 급등에

- 미 전체 내구재 주문이 6월과 7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8월 들어 2.9%로 상승하면서 회복되었다.
- 특히 군사용 항공기와 부품 주문이 50%나 경총 뛰어 전체 주문 상승에 크게 이바지했다.
- 반면에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8월에 0.4% 약간 상승했다.

WSJ 기사

### Bloomberg: White House Tells Agencies to Prepare for Job Cuts in Shutdown

백악관, 연방 부처들에 “셧다운에 따른 일자리 축소에 대비하라”

- 백악관 예산국이 연방 기관들에 “대량 해고에 대비하라”고 지시했다.
- 이번 조치는 일반적인 “폐쇄 프로토콜”을 더욱 넘어서는 것으로 여겨진다. “폐쇄 프로토콜”이란, 정부 자금이 부족할 때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부 기관의 직원에게 휴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. 그 직원은 정부 자금이 회복되면 미지급 임금을 받으며 복귀하게 된다.
- 그러나 이제는 자금이 부족한 프로젝트를 폐쇄하겠다는 것인데,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분야의 일자리는 영구적으로 없애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
- 일반적인 셧다운 상황에서는 연방 직원 10명 중 6명이 필수 인력으로 간주되는 데, 나머지 4명은 예산 지원이 재개될 때까지 근무하지 못하는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### WSJ: U.S. Jobless Claims Fell Last Week

지난주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 감소

-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32,000건에서 218,000건으로 감소했는데, 이는 일자리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약간의 안도감을 발표 수치다.
- 전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3만 건을 기록했는데,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. 올해 초부터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둔화하였고, 실업률은 소폭 증가한 상태이다.
- 또한, 지금까지는 고용 부진이 해고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으나,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많은 해고가 더 빠르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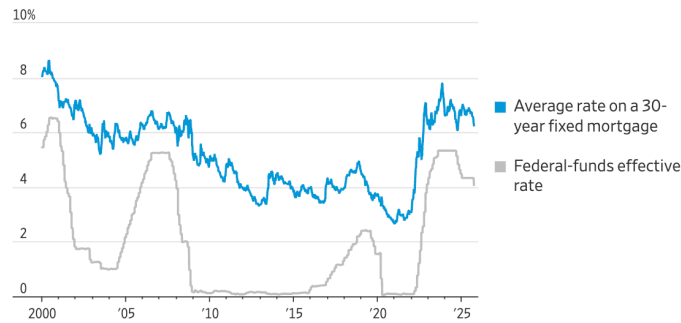
WSJ 기사

### [미국 금융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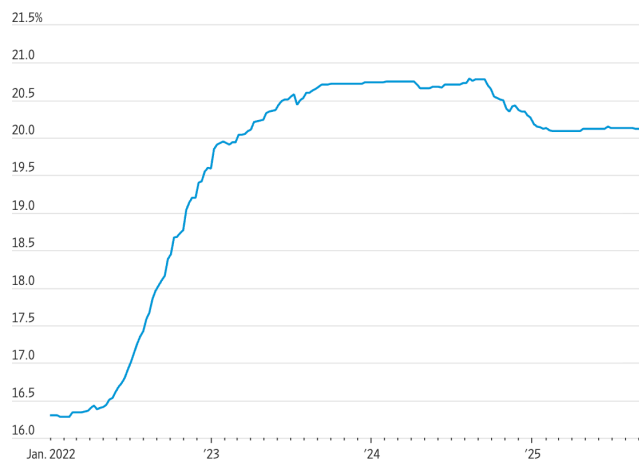
### WSJ: Why Lower Fed Rates Won't Instantly Lower Your Borrowing Costs

금리 인하가 당신의 융자 이자를 곧바로 낮추지 않는다

-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받는 이들은 이자율 인하를 계속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.
- 예컨대 최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이자율은 금년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- 모기지은행협회는 올해말까지 모기지자율이 실제로 6.5%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. 내년 말이 되어서도 약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이유는 연준은 단기 금리 변동을 시도하지만 모기지자율은 크게 보아 10년물 국채 금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국채금리는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.
- 크레딧 카드 이자율의 경우 금리 인하에 따라 내려 가지만 전문가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.
- 자동차 융자 이자율의 경우 여러가지 다른 변수 등 즉, 융자 기간, 금액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.
-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 저축에 대해 은행은 금리 인하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 저축 이자도 점차적으로 약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.

**Mortgage rates vs. fed funds****Mortgages****Average rate on a 30-year fixed mortgage**

Source: Freddie Mac

**Credit cards****Average credit-card rate**

Source: Bankrate

WSJ 기사

**Bloomberg: Stocks Hit by Tech Rout as Solid GDP Lifts Yields: Markets Wrap****견조한 GDP 성장에 국채 금리 상승, 기술주 타격**

- 미국 경제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목요일 발표로 국채가 하락했으며 최근 강세를 보였던 기술주가 타격을 입었다.
- 이날 GDP 소식에 국채 수익률은 상승한 반면에 S&P 500은 거의 1% 가까이 하락중이며 매그니피슨트 7개 기술주 포함한 나스닥 지수는 1% 이상 하락 중이다.
-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오늘 GDP강세가 발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. 이번 발표는 향후 GDP 예상치 아니

고 과거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

Bloomberg 기사

**Reuters: Tariffs could weaken, but not yet reverse, the dollar's reserve status, research shows**  
**‘관세 조치가 달러 기축 통화 변경 아닌 약화 시킬 뿐이다’**

- 트럼프가 올해 4월 대규모 관세 조치를 취하면서 달러의 기축 통화가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 이후 행정부의 완화된 관세 입장으로 기축통화국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련 연구 결과는 밝혔다. 이번 연구는 보스턴 대학등이 공동 발표한 내용이다.
- 트럼프의 현재 평균적인 관세율은 17%~18%를 유지하고 있어 달러를 약화시키겠지만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.
- 이들 발표자는 달러의 안전 자산이라는 특성은 여전히 미 금리를 낮추고, 글로벌 투자의 중심이 되며 원화 거래 안정화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. 물론 계속적인 무역전쟁이 이같은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.

Reuters 기사

**[무역 전쟁]**

**Bloomberg: Trump's Steel Tariffs Are Triggering Counterstrikes From US Neighbors — Against China**  
**트럼프 철강 관세에 멕시코 등은 중국에 규제**

-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, 브라질은 대미 수출 하락을 막기 위해 미국과 관세 인하 협상을 하면서 내수 수요 증가를 진작시키고 있다.
- 특히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값싼 철강 수출품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멕시코는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높이고 캐나다는 중국 철강에 25% 관세 부과, 그리고 브라질은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고하고 있다.
- 이같은 조치들이 미국과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지만 트럼프의 입장이 완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. 미 행정부의 철강 관세 조치는 국가 안보와 국내 철강 산업 장려를 위한 흔들릴 수 없는 핵심 조치라는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**[주택]**

**CNBC: Office investor demand was way up in the first half of 2025, according to exclusive JLL data**  
**오피스 투자 수요, 2025년 상반기에 훨씬 증가**

- 미국 오피스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상승 중에 있다. 올해 상반기에는 거래 규모가 강화되어 총 산업 규모가 259억 달러를 기록했다.
- 글로벌 부동산 및 투자 관리 회사 JLL의 판매 거래에 따르면, 2024년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거래량이 110% 증가했다. 이는 데이터 센터 등 다른 자산 유형의 거래량의 두 배 이상이다.
-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거래는 전년 대비 2025년 상반기에 약 130% 증가했다. 이는 더 나은 업무 환경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.
- 그러나, 현재 오피스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. 내년에는 6백만 개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데, 이는 지난 4년 연평균보다 90%^ 낮은 수치이다.

CNBC 기사

**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**

**YahooFinance: Starbucks announces plans to cut another 900 jobs and close more stores as its turnaround struggles continue**  
**스타벅스, 일자리 900개 감축 및 매장 폐쇄 계획**

- 스타벅스 CEO Brian Nicole이 수익성이 없는 위치의 매장을 폐쇄하고 기업 일 자리를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.
- 직원들에게는 9월 26일 금요일 해고가 통보될 것이며, “급여 연장을 포함한 퇴직 연금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.
- 최근 분기 실적에서 스타벅스는 6분기 연속 하락을 기록한 바 있다.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매장 수를 약 1%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연말까지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스타벅스 지점은 18,842개에서 약 18,300개로 줄어들게 된다.

YahooFinance 기사

### Bloomberg: Spotify Embraces Creative AI While Cracking Down on Fraud Spotify, AI 생성 콘텐츠 단속 예정

- Spotify는 사용자의 앱 사용을 방해하는 AI 생성 콘텐츠를 더욱 단속하는 동시에, 더 빠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AI 툴을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.
- 또한, AI를 사용하여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딥페이크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.
- AI를 이용해 저작권료 지급을 방해하는 트랙도 사전에 감지하는 새로운 스팸 식별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.
- 이에 관해, 이들은 지난 1년간 플랫폼에서 7,500만 개 이상의 “스팸 트랙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. 이러한 스팸 트랙들은 AI를 활용해 수십만 곡의 노래를 만들고 해당 노래에 대해 스트리밍을 유도하여 수입을 만드는 방식이다.

WSJ 기사

### 美에너지장관 "알래스카 LNG 사업 韓·日 기업과 협의중"

#### 기사 요약

-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과의 참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.
-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단 가스전을 통해 천연가스를 추출해 남쪽 항구로 운송·액화 후 아시아로 수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.
- 총 807마일(약 1,297km) 구간에 파이프라인과 액화 터미널을 설치하며, 약 450억 달러의 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